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준공식 축하

존경하는 초말리 사야 손 부통령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의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 비엔티엔에 도착해서 첫 일정으로 이 준공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나라 관계는 1995년 수교 이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도 많습니다. 나는 내일 캄타이 씨판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세운 이 훈련원은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우수한 사람과 높은 교육열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급 학교와 직업훈련원에서 육성한 우수한 기능인들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키워낼 우수한 인재들이 라오스의 공업화를 빠른 시간에 이루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오스의 성공은 한국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의 번영을 이루어갈 훌륭한 협력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양국간 우호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라오스 직업훈련원의 큰 성공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